

교회소식

- 교육부
 - 1월부터 학생들을 위한 세례 및 입교 학습을 시작합니다.
- 선교부: 2020년 세광교회 단기선교
 - 기간: 2020년 2월17일 - 21일(Presidents Day Week)
 - 장소: Honduras (최문재 선교사)
 - 단기선교 모임을 2시 50분 소예배실에서 갖습니다.
 - 학용품과 어린이 옷(2-8세, 특히 5세 이하) 도네이션 받습니다.
 - 이민가방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선교팀을 위해 라이드(17일 주일 새벽 공항까지, 21일 금 밤 공항에서)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 다음 주일(2월 2일)에 혼두라스 선교를 위한 Youth Group "Bake Sale"과 약품 포장을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PCA 한인동북노회 뉴욕시찰회 연합제직수련회
 - 강사: 정호영 목사 (목회적 돌봄 선교센터)
 - 일시: 2월 2일(주) 저녁 5시
 - 장소: 뉴하트선교교회 (정민철 목사) 17 Herzog Pl., Hicksville, NY 11801

제20권 4호

2020년 1월 26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 | |
|-----------------|------------------|
| English Service | 10am / Sanctuary |
| 주일 예배 | 12pm / 본당 |
| 금요 기도회 | 8pm / 본당 |
| 토요 새벽기도 | 6am / 본당 |

주 일 학 교

| | |
|-------|-------------|
| 유치부 | 12pm / 유치부실 |
| 유년부 | 12pm / 유년부실 |
| 중·고등부 | 12pm / 소예배실 |

섬기는 사람들

1월 안내: 임은도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오영숙 집사 (시 84)
 이번 주 친교: 구자금 목사, 전영자 권사
 다음 주 친교: 하영미 집사, 안정자 권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히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솔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이정석(WEC 본부),
 장영호(러시아 미전도 종족),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성경공부 및 모임

| | |
|------------|--------------|
| 창세기 성경공부 | TBD |
| 중·고등부 성경공부 | 금 8pm / 소예배실 |
| 새가족 모임 |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
| 구역 모임 | 구역별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사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 Opening Praise-----“10,000 Reasons”----- Together
- *Call to Worship ----- Together
- *Worship & Praise ----- Together
-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 Apostle’s Creed ----- Together
- Offering Prayer----- Leader
- Word of God-----**Psalm 119:105-106; Proverbs 6:23**----- Pastor Kim
- Sermon----- **“Way of Life”** ----- Rev. Minyoung Lee
- Intercessory Prayer----- Together
- Closing Praise -----“Let Your Glory Fall”----- Together
-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1장(통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Opening Hymn **God is Our Refuge Strong**
-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 *찬송 -----149장(통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다함께
Hymn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 대표기도----- 시편 27:1, 4-9----- 안상민 집사
Prayer **Psalm 27:1, 4-9**
- 찬양 ----- “내 목자는 사랑의 왕”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Prayer
- 성경봉독----- **이사야 52:13-53:12** ----- 인도자
Word of God **Isaiah 52:13-53:12**
- 설교 -----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 이민영 목사
Sermon
- 인사 및 광고-----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 *찬송 ----- 191장(통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 다함께
Hymn **I'm Rejoicing Night and Day**
-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여호와의 팔이여 이사야사 51:4-6, 9-11; 52:7-10; 53:1-6

구약에 자주 나오는 “여호와의 팔”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지 않고 개입하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팔이지만, 때로는 징계하시는 팔이기도 합니다(시 32:4; 겔 20:33 등).

여호와의 팔이라는 표현은 특히 출애굽과 관련해 많이 사용됩니다. 당시 사건을 묘사할 때에도, 신명기에서 그 사건을 회고할 때에도, 시편으로 늘 부를 때에도, 선지자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며 장차 구원을 소망할 때에도 “능한 손과 퍼신 팔”이란 표현이 사용됩니다(출 6:6; 15:16; 신 11:2; 시 136:12; 렘 32:21 등).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사 51:9)라고 부르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출애굽 때처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사실 패전국의 포로된 처지에서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저 하늘의 탓으로 돌리는 자포자기의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51:5).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손 놓고 있지 않고 그 팔을 친히 걷어붙이고 구원하시겠다고, 모든 열방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듣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52:9-10).

이 정도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것은 애굽 때처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누구도 꿈쩍못하게 원수들에게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해진 소식은, 우리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팔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놀랍고 거룩한 여호와의 팔, 그의 능력과 구원이라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신 것이었고,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그렇게 나타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휘두른 팔이 아니라 감싸 안은 팔이었습니다. 사실 그 팔이 진짜 나타난다면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안겨 구원을 얻은 팔이었습니다. 자격 있다고, 선민이라고, 그중 낫다고 외치며 팔을 휘두를 자격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불의한 자, 어리석은 자의 손에 휘둘리는 팔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어쩔 수 없는 자와 함께 하도록 가장 낮게 임하셔서 모두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 들어올리신 팔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여호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믿음으로 그 팔에 안기는 자. 겸손함으로 함께 낮아져 형제와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의 팔을 앙모하는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신다는 소아병적인 자기 의와 편가르기가 아니라, 형제와 나를 밑에서부터 함께 안아주시는 자비로운 팔을 의지하여 겸손한 것입니다. 그 능하신 팔 아래서 한 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Memo>